

## 張一世式

## 韓國人著者記號表의 構成原理(下)

## 張 一 世

그에 서 증까지를 姓數比例에 依하여 上記한 바와 같이 記號數配當이 끝났으므로 그 다음에는 각 子音에 配當된 記號數를 그 子音을 첫소리로 하는 姓數比例로 다시 配當하여야 한다.

이 配當은 第1表에 依하여 하여야만 가장 恰當할 것이다. 第1表에 表示된 바와 같이 한 子音을 첫소리로 하는 여러 姓의 그 使用되는 數에 依한 比率이 明確히 나타나 있으므로 第5表에서 配當된 記號表를 그 比率에 依하여 割當하면 된다. 이 렇게 함으로써 각 姓의 記號數는 그 姓數의 比例에 依하여 適當히 配當될 것이다.

그러나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比率이 不過 0.1이라든지 또는 그 以下의 比率을 가진 姓은 그러한 姓이 앞뒤 몇개가 있을 경우에 서로 合쳐서 하나의 記號數를 配當받을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러한 比率이 적은 것의 앞뒤에 있는 딴 姓에 吸收되거나 또는 그러한 姓들에 가까운 字로 替代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實際로 配當되는 記號數는 實際의 姓數와 差異가 있게 되며, 表示되는 姓이 實際로 使用되지 아니하는 글자가 있게 된다.

各 姓 또는 姓들을 表示하는 글자에 配當된 記號數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方法에 依하여 算出하면 다음 第6表와 같다.

第6表 姓數比例에 依한 姓 또는 姓을 代表하는 글자에 配當된 記號數

姓을 하는 글자	대표 글자	記號數	姓을 하는 글자	대표 글자	記號數
가		1	다		1
강		62	도		4
겨		1	득		1
고		23	동		2
공		1	두		1
파		10			
구		7	라		1
국		3	래		1
권		29	로		1
그		2	롬		1
금		3	료		1
기		1	루		1
질		3	류		1
김		583	리		1
			링		1
나		9			
난		1	마		2
남		12	만		1
낭		1	병		2
내		1	명		2
노		1	모		1
뇌		19	복		1
니		1	목		1
			문		1
					26

	미	1	1	초	1	파	1
	민	8		최	333	편	1
				주	5	표	1
						피	4
						필	1
日	바	1	1	카	1		1
	박	309	49	캬	1		1
	반	2	1	커	1		25
	방	15	1	캐	1	한	132
	배	23	2	코	1	함	13
	백	35	1	쿠	1	해	1
	벼	1	1	큐	1	허	44
	범	13	9	크	1	현	18
	변	1	1	키	1	형	1
	복	2	58			호	1
人	봉	2	1			홍	84
	비	2	52			화	1
	사	2	1	타	1	황	84
	상	1	413	탁	5	후	1
	서	80	53	태	2		
	석	8		토	1		
	선	4					
	설	5					
	성	18					
	소	5					
人	손	52					
	송	80					
	수	1					
	승	1					
	시	1					
	신	117					
	심	30					
○	아	1					
	안	38					
	애	1					
	야	1					
	양	22					
	어	1					
	언	1					
	엄	7					
	여	1					

## 2. 韓國人の 이름

第5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姓 또는 姓에 近似한 글字에 對한 記號數 配當은 끝났다.

그 다음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한 姓에 여러 記號가 配當된 것을 어떻게 다시 細分하느냐 하는 것이다. 第6表 그欄에서 보면 가, 겨, 공, 기 等은 記號數가 하나 뿐이지만 김 같은것은 583이라는 莫大한 記號數의 配當을 받고 있다. 이것은 第1表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人口中 많이 쓰이는 姓의 數比例에 依하여 算出한 記號數인 까닭이라는 것은 上述한 바이지 만 이렇게 많은 記號를 細分하는데 있어서는 이름의 頻度에 依하지 아니하면 아 니되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여기에 비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글字의 使用 頻度數에 對한 廣範한 調査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姓과 같이 이

름은 一定한 글자制限이 있는 것도 아니오  
또 系統이 서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  
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무슨 글  
자를 더 많이 쓰는가 하는 것을 알아 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多幸히 姓에 依하  
여 이름이 左右되거나 또는 姓에 依하여  
이름 글자의 制限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  
므로 姓의 어떤 것을 不問하고 이의 頻度  
를 調査하면 여기서 어떤 統計를 알아 낼  
수 있을 것이다.

99,835名에 達하는 이름을 될 수 있는데  
로 廣範囲하게, 그리고 各界 各層에서 풀  
라 統計資料를 삽았다.

이 統計資料 全部는 紙面關係로 여기서  
는 省略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의一部分  
을 여기에 例示하는 理由는 이 著者記號表  
의 構成原理를 理解하기 簡便하기 为了  
함은勿論이다.

第7表 韓國人 이름 頻度統計

이름첫자	이름둘쨋자	頻 度 數
갑	수	45
	숙	7
	준	41
	준	1
	승	1
	식	11
	실	1
홍	구	15
	권	2
	규	33
	균	8
	근	20
	기	27

上記 例와 같은 方法에 依한 統計를 基  
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統計를 얻게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이름 構成의 輪廓  
이 明白하게 되는 것이다.

第8表 이름 첫쨋자에 따른 이름  
둘쨋자 첫소리別 統計

이름첫자	둘 첫 소 리	둘翕자첫 소리 頻度數
가	ㄱ	4
	ㄷ	1
	ㅁ	3
	ㅂ	2
육	ㅡ	16
	ㄱ	13
	ㄴ	1
	ㄷ	3

第8表를 다시 簡略하게 하기 为了하여 第  
8表에서 이름 둘翕자를 除外하고 이름 첫  
翕자만의 頻度數를 調査한것의 一部를 例  
示하면 다음과 같다.

第9表 이름 첫翕자와 이의 頻度數

가	31
작	13
간	15
갈	3
감	4
갑	323
강	374
개	39
객	4

以上의 例示에서 본 바와 같이 漸次로  
이름으로 쓰이는 첫翕자와 둘翕자의 頻度  
數가 明確히 나타났다. 이제 이름의 첫자  
첫소리別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10表 이름첫째자 첫소리別 統計

이름 첫소리	實際 調査數	探擇된 人員數	%
ㄱ	11,886	11,274	11.75
ㄴ	1,638	1,638	1.7
ㄷ	5,736	5,736	5.9
ㄹ	0	0	0
ㅁ	5,026	5,026	5.2
ㅂ	5,328	5,328	5.5
ㅅ	17,727	16,527	17.2
ㅇ	20,870	20,003	20.8
ㅈ	14,832	14,308	14.9
ㅊ	6,044	5,743	5.9
ㅋ	0	0	0
ㅌ	2,141	2,141	2.2
ㅍ	771	771	0.8
ㅎ	7,836	7,398	7.7
計	99,835	95,893	99.55

以上의 여러가지 統計는 第5表에서 姓에 配當된 記號數에 따라 細分하는데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記號數에 따라 이름統計를 利用하여 姓以下의 細分하는 原則을 例示하기 為하여 第5表「姓에 配當된 記號數」 가운데에서一部分을 轉記하면 다음과 같다.

	姓을代表 하는글자	配當된 記號數
人	사	2
	상	1
	서	80
	석	8
	선	4
	설	5
	성	18
	소	5
	손	52
	총	80
	수	1

승	1
시	1
신	117
심	30
計	405

위에 轉記한 第5表 ㅅ中에서 配當된 記號數가 1인 것은 그 글자가 代表하는 姓을 使用하는 人口數가 적으므로 더 細分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상수, 승, 시, 姓等은 이에 該當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姓을 가진 著者는 모두 그 姓이 表示하는 記號數를 著者記號로 使用하게 된다.勿論 記號數는 上記表에 表示되지는 않았으나 각 姓에게 配當된 記號數에 對한 이름의 統計에 依한 細分이 決定되면 각 著者에 對한 記號도 配當될 것이다.

다음으로 例를 「선」字로서 代表하는 姓에 두기로 한다. 「선」은 記號數가 4개 配當되었다. 그러므로 假想할 수 있는 이름을 넷으로 나누어 그 姓에 配當하면 된다. 그러기 為하여 第9表의 이름의 統計에 依하여 平均的으로 나누어 보면 가, 바, 아, 차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說明하면 姓이 「선」氏인 사람의 이름中 이름 첫자 「가」는 이름의 첫자 「가」부터 이름첫자 「바」 바로 앞까지를 代表하는 것으로서 比率로 表示하면 第9表 ㄱ에서 ㅁ까지, 即 24.55%, 「바」는 「바」에서 「아」 바로 앞까지 即 第9表의 ㅂ에서 ㅅ까지의 22.75%, 「아」는 20.8%, 「자」는 「자」에서 끝까지 31.5%가 된다. 이러한 比率을 보면 大體로 平均하게 나누어 진것을 알 수 있다. 严格히 이야기해서 正確하게 4等分 할 수 있는 것인지만 그렇게 함으로

써 著者記號表 使用者로 하여금 記號表를 보는데 不便을 주거나 빨리 適當한 記號를 發見하는데 支障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하며, 그러기 爲하여는 大體로 4等分되 었더라도 알기 쉽고, 보기 쉬운 글字에서 시작하는것이 더욱 便利한 것이다.

위에 引用한것은 以上 이야기한 理由에 依한 것이다.

따라서 선가

선바

선아

선자로 되는데 이 뜻은

「선」을 姓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를 첫字에 依하여 4等分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름이 假使「선기석」인경우는 「선가」에, 「선방현」은 「선바」에, 「선아남」은 선아에, 그리고 「선현식」은 「선자」에 각各 屬한다 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가, 선바, 선아, 선자에 記號를 다음과 같이 配當한다면 좀더 明確히 記號化된다.

即 선가 313

선바 315

선아 317

선자 319

위에 使用된 記號 即 아라비아 數字에 對하여는 이미 Ⅲ. ㄴ. 「著者記號表의 記號」에서 論하였지만, ㅅ의 경우에는 세자리의 아라비아 數字中 奇數만을 쓰기로 하였기 때문에 405의 記號는 111에서 999 까지에 自然히 配定되며, 그 각 姓數比例 記號配定은 이미 第6表에서 明示하였다.

以上 例示한것은 記號 配當의 根本의 方法을 表示한것이다. 第6表「姓 또는 姓을 代表하는 글자에 配當된 記號數」에 根據하여 이름 頻度數 統計 (第7, 8, 9, 10表 參照)에 依據한 記號 配當方法은 모두 同

一한 方法에 依함은勿論이다. 손姓에 配當된 52의 記號도 方法에 依하여 配當되 지만 記號數가 많아짐에 따라 이름의 첫 자가同一한것이 여러개 생기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字 即 第8表「이름 첫째자에 따르는 이름 둘째자 첫소리別 統計 또는 第7表의 가장 細密한 이름 統計에 依하여 이름 둘째자를 決定하게 된다.

여기에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손姓에 配當된 52의 記號를 第9表「이름 첫째자와 이의 頻度數」統計에 依據하여, 위에서 說明한 선氏의 경우와 같은 方法에 따라 이름 첫째자를 配定하면 세개의 영字가 配當된다. 이것은 위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이름의 頻度調查에서 온 結果로서, 第10表의 比率에 依하여 이름 첫소리에 對한 記號數를 決定하고, 그 決定된 記號數에 따라 第9表의 數比例에 依하여 이름 첫字를 確定시킨다. 이리하여 이름 첫자가 같은 것이 둘 以上 配定되었을 때에는 다시 第8表에 依據, 이름 둘째자 첫소리를 數의 比例에 따라 配當하고, 다시 第一 細密한 統計表인 第7表에 依하여 이름 둘째자까지 確定시킨다.

이러한 方法에 依하면 上記한 손영은 손영

손영사

손영차로 되는데 여기에 配當된 記號는

손영 443

손영사 445

손영차 447 이므로, 이것이 뜻하는 것은,

姓이 손인 著者的 이름 첫字가 「영」(또는 한字 이름 영)인 사람으로서 이름 둘째자가 「사」 바로 앞까지의 사람은 記號 443을, 이름 첫字는 같은 「영」이고 이름

들妖怪가 「사」에서 「차」 바로 앞 까지의 著者는 記號 445를 使用하라는 뜻이다.

張一世式 著者記號表의 모든 構成原理는 上記한 說明과 同一한 것이다. 即 鄰範圍한 統計에 依한 頻度數에 基礎를 두어 構成한 것이다. 그터므로 가장 普遍性 있고, 그리고 矛盾과 無理가 없이 自然의 으로 著者名의 가, 나, 다, 順序에 따라 排列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方法에 依하여 構成된 著者記號表의 一部分만을 본보기로 여기에 例示한다.

第11表 張一世式韓國人著名記號의  
一部

김 라	431	윤파
마	432	하
만	433	호
만라	434	은-
만수	435	음-
만아	436	이가
만종	437	갑
말	438	강
맹	439	강하
조정오	841	최종혁
정하	843	주
종나	845	주아
종아	847	준
주	849	준사

#### IV. 張一世式著者記號表의 使用法

1. 間著者の 姓을 表에서 찾는다. 萬一 姓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姓字에 第一 가까운 바로 앞字를 찾는다. 그 다음은 이름을 가, 나, 다, 順에 따라 찾는다. 역시 그 이름을 表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第一 가까운 바로 앞字를 찾는다.

다. 그리하여 姓字의 첫소리와 그곳에 있는 數字를 結合하여 著者記號를 만든다.

먼저 表의 一部分을 위에서 例示한것을 다시 이곳에 轉記하여 實際假想의 著者名에 適用해 보기로 한다. 即 記號表의 首頁 끝行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김 라	431	윤파
마	432	하
만	433	호
만라	434	은-
만수	435	음-
만아	436	이가
만종	437	갑
말	438	강
맹	439	강하

위의 例示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氏 같이 많이 쓰이는 姓은 詳細한 展開가 되어 있으나 그 反面 「은」 또는 「음」 같이 적게 쓰이는 姓은 全然 展開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細密한 統計에 依하여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說明한 方法에 따라 著者記號를 찾는다면 모든 음氏는 ○ 435, 김만길은 ▲ 433, 김마흡을 ▲ 432, 김만복은 ▲ 434, 궁상기는 ○ 434, 이갑동 ○ 437로 된다. 위에서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찾고자하는 字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글자와 第一 가까운 바로 앞의 글字를 찾을 것이며 다음에 오는 字를 絶對로 써서는 아니된다.

即 前記 例에 있어서 김만복을 表에서 찾으면

(김만라 434)의 中間에서 찾게 된다. 그터므로 或者는 「복」字가 「라」字보다 「수」字에 가깝기 때문에 ▲ 435의 記號를 주기 쉬우나 그러지 말고 「복」字에 가까운

바로 앞의 글자 即「라」字가 있는 記號인 「434」를 주라는 것이다.

이 原則은 모든 著者記號를 配定하는데 있어서 共通으로 適用된다.

2. 著者名이 中國人名 日本人名 또는 國體일 때에도 위와 같은 方法에 依하여 定한다.

例 「韓國史學會」가 著者인 경우 「韓國史」를 著者名으로 看做하고 表에서 찾는다.

表을 보면 (한국 177) 이므로 「韓國史」가 第一 가까운 한글 177을 띠게되어 그 記號는 ㅎ 177이다.

3. 書名이 標目으로 된 것의 著者記號도 위와 같은 方法에 依하여 定한다.

例 書名이 「春香傳」으로서 著者名 대신 標目으로 될 경우 「春香傳」을 著者名과 같이 看做하고 記號表에서 찾는다. 記號表에는 차례 번 끝이 추차 999이고 그 다음은 없으므로 「春香傳」의 著者記號는 ㅎ 999가 된다.

4. 같을 著者的 여러 著作를 區別하기 위하여는 書名의 첫소리만을 著者記號에 添加한다. 이렇게 하여 중으로써 同一著者的 著書도 가, 나, 다, 順으로 排列하게 된다.

例 李光洙의 「麻衣太子」는 ◦ 461ㅁ

〃 「사랑」은 ◦ 461ㅅ

〃 「흙」은 ◦ 461ㅎ

萬一 書名의 첫소리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中聲까지 記入하여서 이를 區別한다.

例 李光洙의 「麻衣太子」는 ◦ 461마

〃 「無情」은 ◦ 461무

5. 同一著者の 版數表示는 著者記號에 繼續하여 아라비아 數字로 表示한다.

例 金容浩의 詩文學入門 第2版은 ◦ 713

ㅅ 2

6. 傳記書에 있어서는 被傳記著의 著者記號를 따로 著者の 姓 첫소리를 그 記號에 붙인다.

例 金東仁著 春園研究는 ◦ 461ㄱ

李廷華著 아버님 春園은 ◦ 461ㅇ

7. 翻譯書는 翻譯된 言語別로 排列되도록 特殊記號를 使用한다.

例

春香傳은 ◉ 999

〃 英語版은 ◉ 999English의 頭文字

〃 獨語版은 ◉ 999German의 "

卞榮泰 「나의 祖國」은 ◉ 975나

〃 英語版은 ◉ 975나E

8. 必要한 곳에서는 十進方法에 依하여 記號表을 展開하여 使用한다.

記號表에 보면 「박식」이 ◉ 551이므로 朴益健, 朴益達 또는 朴益贊은 모두 ◉ 551을 使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同一 分類記號 안에서는 許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著者名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著者記號도 달리 매겨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記號表을 더 展開하여야 하는데 萬一 朴益健이 ◉ 551로 이미 使用되었는데 그 후에 朴益贊이 나왔을 경우 끝자 即 贊자 그에서 중까지 사이에서 大體로 끝에 있으므로 아라비아 數字 1에서 9까지 中 끝數字 9를 쓰기로 하여 ◉ 551에 添加한다면 朴益贊의 著者記號는 ◉ 5519로 決定된다.

그 후에 다시 朴益達이 나왔을 경우에는 達이 그에서 중까지 사이에서 中間보다 앞에 位置해 있으므로 1에서 9까지 中間보다 바로 앞인 3을 쓰기로 한다면

15513이 朴益達의 著者記號로 된다.  
이러한 方法에 따라 必要한 곳에서는  
마음대로 展開하여 使用한다.

## V. 結 言

처음에는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標準의 著者記號表가 없었던 關係로 여러 圖書館의 圖書 整理面에 있어서 多大한 不便을 가져왔음을勿論 不必要한 勞力과 時間의 浪費를 어찌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急速度로 늘어가는 藏書數를 整理하는데 있어서 많은 苦痛을 느껴왔을 뿐만 아니라 날을 거듭 할수록 圖書 整理作業의 後進性을 脱支할 道理가 없었고 이것은 또한 圖書 整理面에서의 發展을 阻害한 第一 큰 痘的存在로 化하고 말았던 것이다.

拙者가 韓國人著者記號表를 만들게 된理由는 앞으로 생겨날 數많은 圖書館의 圖書整理에 있어서 過去와 같은 不便을 없애고 보다 나은 技術面의 向上과 가장 친보적인 方法에 依한 圖書整理를 可能토록 함으로써 뒤떨어진 우리나라 圖書館事業에多少라도 寄與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理想的의 著者記號表는 言語의 障壁을超越하고 어느나라의 著者에게도 適用할 수 있고 또 어떠한 規模의 圖書館에서도 使用할 수 있는것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理想의 것이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理想의 것을 만들기 為하여 더욱 研究하여야 하겠지만 그 첫 段階의 하나로 為先 우리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東洋 三國, 即, 韓, 中, 日 三國 그中에서도 특히 日本圖書를 整理하-

는데 支障을 주지 않는 著者記號表가 만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三國이 漢文字를 共用하고 있으며 더욱이 姓名에 있어서는 極히 少數를 除外하고는 거의 全部가 漢文字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張一世式 著者記號表로도 使用法에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中國人, 또는 日本人에게 適用할 수는勿論 있으나 이의 發音이 判異하고 우리말로의 標記方法이 實際하지 못하여서 廣範한 適用에는 不便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表記方法을 解決하기 為하여 文敎部에서는 이미 1958年 10月 20日字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을 制定公布<sup>(13)</sup> 한바 있거니와 同 編蒐資料 第2輯에서도<sup>(14)</sup> 言及한 바와 같이 言論界나 一般社會의 協助와 支持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教育界는 勿論 言論界와 一般社會의 協助와 支持에 對한 與否는 오로지 그 標記方法의 妥當性 如何에 달려 있다.

當局에서 制定公布 했다고해서 無條件의 協助와 支持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筆者の 調査에 依하면 단것은 몰라도 日本語의 標記方法에 있어서는 實际히 一般社會에서나 言論界的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 代表의 新聞인 韓國, 東亞, 朝鮮 日報 및 思想界을 中心으로 調査하여 본結果 거의 文敎部制定 日本語 우리말 標記方法에 一致하지 않는 標記를 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文敎部에서 制定한 標記方法 그 自體가 많은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다는 證左이고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標準의in 標記方法으로 우리들이 따를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社會의 이러한 反響은 마땅히 參酌될것이며 言論界나 教育界 그리고 一般社會에서 贊同을 얻을수 있는 標記方法이 반드시 만들어 질것을 確信하는 바이지만 이方法이 確固하게 만들어 지기 前에는 上述한바와 같이 三國에 共用되는 著者記號表가 만들어 질수는 없는 일이다.

張一世式 著者記號表에 充分히 이러한 點이 考慮될수 없었던 理由는 바로 이것 이었다.

勿論 筆者는 筆者대로의 標記法에 對한 私案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것을 根據로 하여 저자기호표를 못만들理 없으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私案에 지나지 않으며 標準의이 아니므로 筆者は 그것을 避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解決되어서 훌륭한 저자기호표가 完成되기만 간절히 期待하는 바이다.

- ① L. R. Wilson, & M.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2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C 1956 pp. 191—2:
- ② 張一世, 學校圖書館 運營法, 서울, 學校 圖書刊行會 1959. p. 89
- ③ Mebil Dewey. Simplified Library Scey -

ool Rules. 1898. p. 53

④ 張一世, 前揭書 p. 90

⑤ C. A. Cutter. Cutter 2—Figure author table.

C. A. Cutter. Cutter 3—Figure author table.

C. A. Cutter & K. E. Samborn, Cutter-Samborn 3—Figure author table.

⑥ B. R. Barden. Book numbers. Chicago. A. L. A., 1937. p. 8

毛利宮彥 圖書館學序說 東京 長谷川書房 1955. pp. 179—188.

⑦ M. F. Tauber Technical Services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4. p. 24

⑧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改訂版, 東京, 理想社 1950. p. 296

⑨ 高在昶編, 韓銀圖書分類法, 서울, 韓銀調查部 圖書室 4287

⑩ C.A.Cutter 前揭書

⑪ 高在昶, 前揭書, 附錄, 著者記號表 p. xxvf.

이재철. 동서저자기호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58

⑫ 朝鮮總督府, 朝鮮 朝姓, 京城 昭9 (1934)

⑬ 문교부, 편수국, 편수자로 제1호 「서울」 4292, 36p

⑭ 문교부, 편수국, 편수자로 제2호 「서울」 4292 43, 11p

(筆者: 梨花女大 專任 講師)

## 韓國年鑑 1962年版 遂出版！

韓國年鑑編纂會編

621 P. 圖版. 25cm

(臨時定價金 680원)